

# “독자적 인구정책·관광객 유입 통해 지역 소멸 탈출하겠다”



강진원 강진군수 민선 8기 1주년 인터뷰

## 전국 최고 육아수당 효과 10년만에 인구 증가세로 돌아서 사계절 특성 살린 축제·전원주택 조성으로 인구 유입 박차

“강진군만의 독자적인 인구정책과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 정책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서 탈출하겠습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新)강진 건설을 위해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인구소멸 저지를 위해 외부적으로 대거 관광객 유입과 내부적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제도를 도입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등 ‘투트랙’으로 진행해왔다.

강진군은 지난해 ‘강진형 육아 양육수당’ 정책을 도입하고 아동 1인당 7년 동안 매달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해오던 군의 인구 증가 추이는 육아수당 지급을 시작한 지 9개월만인 지난 6월, 증가세로 돌아서며 14명의

인구가 늘어났다.

관광객 유입과 함께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을 통한 귀농·귀촌인 유입은 지난 5월,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며 임천지구 일대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강 군수는 “임천지구 이외에도 군동면 금곡지구, 대구면 남호지구 등에 신규마을을 조성으로, 도시민이 시골 생활에서 꿈꾸는 전원의 낭만을 선사해 ‘두 번째 인생’을 강진에서 시작할 수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상반기에만 강진정자축제(2월28일~3월1일), 전라병영성축제(3월31일~4월2일), 금곡사벚꽃삼십리길축제(3월31일~4월1일), 월출산봉소풍축제(4월21~23일), 마량놀토수산시장(4월22일~10월28일), 병영불금불과(5월26일~7월1일), 수곡길축제(7월1~2일) 등 7개의 축제를 개최

하며 500만명 관광객 유치에 성공 다가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치른 7개의 축제 가운데 청자축제는 개최 시기를 2월 말 3월 초로 옮겨 틈새시장을 공략한 결과, 군 인구의 세 배가 넘는 10만6000여 명을 불러 모았고, 금곡사벚꽃삼십리길축제와 전라병영성축제는 당초 따로 개최하던 것을 같은 시기에 개최해, 9만명의 관광객이 찾아들며 더 큰 효과를 냈다.

이 밖에 올해 처음 선보인 병영불금불과와 월출산봉소풍축제, 수곡길 축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관광자원을 축제와 연결해, 새로운 히트작을 만들어냈다는 평가이다.

바다와 섬과 평야와 산을 모두 가진 강진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그동안 수산 양식에 치중돼 있던 어촌 경제를 해양레저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2월, 강 군수의 녹동향 방문을 시작으로, 완도항, 회진항, 서평항, 군산항 등을 찾아나서 어선협회 임원과 선장 등 다양한 관계자를 만나 설득을 거듭해 온 결과, 지난 6월 22일, 마량항에 7대의 바다낚시 어선을 유치하는 성과와 함께 역사적인 출항식을 했다.

강진군은 대한민국 최대 쌀귀리 주산지, 쌀귀리 단지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지정되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쌀귀리 특화산업 집적단지를 구축한다.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해, 쌀귀리의 아성을 3차산업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강 군수가 취임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민 인구 유입과 함께 비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복안으로, 지난 달 28일 현재 빈집 57가구가 접수했고 이 가운데 심의를 거쳐 27개소가 1차 선정됐다.

빈집리모델링사업은 군에서 임대 기간에 따라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사업비를 들여 시골에 빈집의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이 주택을 도시민에게 임대해, 인구 유입과 함께 비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강진원 군수의 3선의 노련함과 지역 현실을 기반으로 한 성찰이 돋보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소통, 연결, 창조, 신 강진을 군정의 정책 기조로 삼고 지역 축제 다각화와 관광객 유입, 인구 증가의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자체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지속적 선순환 구조를 통해 강진군을 발전시켜겠다”고 강조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담양군 참전·보훈명예수당 인상 월 8만·4만→10만원

담양군이 이달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각각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월 4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담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 부상자·공로자이다.

수당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증과 통장 사본을 갖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면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온 국가유공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수당 인상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kwangju.co.kr

## 장흥 회령포 문화축제, 이순신 축제로 명량대첩 승리 전초지...올해부터 명칭 변경 9월 1~3일 개최

장흥군은 매년 개최하는 ‘회령포 문화축제’가 올해부터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6일 밝혔다.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회령포 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열고 축제 명칭 변경을 확정했다.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간 회령진성과 회진항 일원에서 개최한다.

장흥군은 명량대첩 승리 전초지인 회령포의 역사적 가치와 이순신 장군의 연관성을 재조명하고 축제를 통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회진면 회령포 문화축제는 2017년부터 회진면에서 주최하던 행사로, 올해부터는 군단위 축제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날 축제 추진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장에 주재용 장흥군 병영회장, 부위원장에 백경만 회진면 청년회장, 예산집행위원장에 문병길 장흥군 문화관광해설사협회장이 선출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회진 회령포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판옥선을 보수했던 지역으로 명량대전 대승리의 출발점”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지난해 열린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 모습.

<장흥군 제공>

## 이상익 함평군수, 급여 3억원 장학금 기탁

올 상반기 4720만원 등 3년째

이상익(사진) 함평군수가 3년여간 급여 3억원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함평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올해 상반기 급여 4720만원 전액을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장학금)에 기탁했다.

2020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 군수는 후보 시절부터 급여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고 밝혔고, 취임 후 이를 실천했다.

현재까지 급여 3억원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이 군수는 “함평의 미래를 끌어 나갈 인재 육성



이어진다.

군은 올해 인재양성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187명을 포함 현재까지 총 443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화순군 “문화누리카드 다 쓰고 빵 받으세요”

‘여름 빵(0)캠프’ 행사

화순군이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액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기로 했다.

‘전남 문화누리 여름 빵(0)캠프’ 행사 대상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문화누리카드 잔액을 모두 쓴 이용자이다.

문화누리카드를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지급되는 통합 문화이용권이다.

1인당 한 해 11만원 상당을 영화·도서·음반·테마파크·여행·스포츠 등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전액 사용을 전자 문서 작성 등을 통해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원 상당 제과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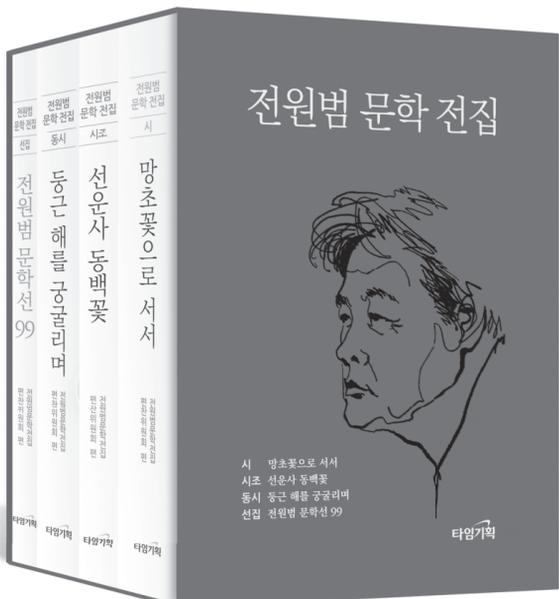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은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카드 발급 대상자들은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카드 사용 기한인 12월31일이 지나면 지원금이 없어진다”며 “화순군 카드 이용자들이 남은 금액을 소진하고 경품 당첨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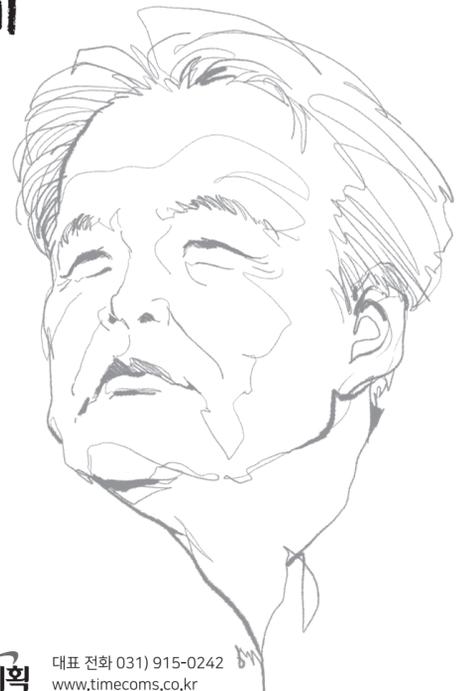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염정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류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